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과 학위논문

여성 타투이스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성별 개인주의 사안

202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과 전공
Valentina Rende (렌데발렌티나)

여성 타투이스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성별 개인주의 사안

지도 교수 Erik Mobrand

이 논문을 국제학과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5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과 전공

Valentina Rende (렌데발렌티나)

렌데발렌티나의 국제학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8 월

위원장 박지환 교수님_____(인)

부위원장 박은희 교수님_____(인)

위원 Professor Erik Mobrand_____(인)

목차

초록 iv
감사의 글 vi
I 서론 1
II 문헌분석 5
  1 타투의 역사와 타투의 인식 변화 6
  2 개인주의 개념 12
  3 미디어를 통한 타투의 이미지화 17
III 연구방법 19
IV 연구결과 24
V 고찰 37
VI 결론 52
참고문헌 55
Abstract 63

초록

타투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인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특히 보수주의자들과 기성세대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비의료 전문가가 시술을 수행하는 경우) 불법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사회적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타투가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논문에서 이러한 현상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개인주의를 상당부분 부정당했고 남성들과는 다른 기준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최근의 발전은 개인주의와 성역할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더 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타투를 가지고 타투 아티스트로 일하는 것은 여성들이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더라도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삶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상징한다. 게다가, 사회적 미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은 한국에서 정상화되었지만, 타투는 좀 더 개인주의적인 형태의 신체 변형으로서 오히려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다른 맥락과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이 논문은 타투를 눈에 보이는 지표이자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현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택되었다. 이 논문은 추가 연구에 필요한 역사적 발전과 이론적 배경에 관한 문헌 검토 외에도 한국 여성 타투이스트와의 질적 심층 인터뷰를 통해 풀어나간다. 인터뷰는 이 분야의 여성들의 경험을 탐구하고 개인의 동기와 사회 내에서의 위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터뷰와 경험을 분석해 보면,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나 하위 문화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기대와 성 역할에 대해 저항하지만, 공동체 밖의 사람들, 특히 기성세대들에 의해 그들의 의견이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이 다소 집단주의적인 사회로 분류되는 반면, 이러한 발견은 특정 집단이나 하위 문화가 개인주의와 성 역할에 관한 문화적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더 큰 사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주로 남성중심의 사회에 근거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타투, 한국 사회, 개인주의, 문신, 젠더

학번: 2021-25837

감사의 글

우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체에 감사드립니다. 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제 논문에 이르기까지 배운 것과 들었던 수업에 감사합니다.

논문 지도교수인 Erik Mobrand 교수님과 위원장이자 부회장인 박지환 교수님, 박은희 교수님께서 제 연구와 집필과정에서 지도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한 제 연구를 위해 그들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준 모든 놀라운 여성 타투이스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공식 인터뷰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대화를 나눈 리즌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논문을 연구하고 작성한 기간 동안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잠재적인 인터뷰자들에게 추천해 주시거나 소개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I 서론

따뜻한 계절을 맞이한 한국, 특히 서울 시내 어느 특정 지역에 있다 보면 타투를 한 사람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한국의 많은 카페의 바리스타들은 물론, 지하철을 타는 일반 시민들의 타투가 새겨진 팔과 다리를 쉽게 볼 수 있다. 강영훈·김고운·김우빈 (2021)에 따르면, 타투는 약 1300 만 명의 한국 시민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서양)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흔할 수도 있지만, 타투를 새기는 행위가 불과 10 년 전만 해도 흔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한국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비의료전문가인 타투이스트들의 시술은 불법이라는 점은 다소 놀라운 일이다. 2014 년과 2018 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타투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수가 2018 년에 거의 20%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tatista, 2021). 또한 본 논문을 통해 상세히 설명될 몇 가지 차이점은 한국 남성과 여성의 타투 사이에 존재하지만, 두 가지 모두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인된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타투를 새기는 것의 불법성은 사회와 국회의원 모두에 의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담론은 지금까지 입법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타투의 불법성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하지만, 일부에서는 타투를 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성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제시한다 (Park 2015).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타투가 주류 문화의 일부가 된 반면, 한국에서는 금기를 강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공식 매체에서 타투가 신체적으로 (밴드 등을 사용하여) 검열되거나 디지털로 (타투를 흐릿하게) 검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투가 검열되지 않는 온라인 콘텐츠로 콘텐츠 소비가 이동함에 따라 타투 문화 더 주류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투에 대한 담론은

합법화를 위한 싸움을 둘러싼 이슈나 인기 연예인의 타투를 둘러싼 토론과 같은 경우에 한국 언론에 존재하지만, 뉴미디어에 더 많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일부 개인주의는 존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또는 선택적 집단주의 (selective collectivism) 사회로 분류되며, 이는 집단 소속에 대한 욕구와 같은 측면을 통해 보여 질 수 있다 (양정은·이재원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에서 벗어난 하위 문화 또는 경향과 같은 최근의 현상들을 보면 사회 내에서 더 많은 개인주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문이 주목할 현상 중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 타투를 한 구성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주로 젊은 층의 외관에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의 징후로 기술되어 왔으며 (Park 2015), 이 논문은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향한 사회적 변화의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여성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경섭·송민영 (2010)는 압축된 현대성 하에서 한국 여성들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를 고수하기 위해 개인화되어야 하지만 한국여성에게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가부장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이 그들 자신을 주체적인 여성으로써 인정하는 것은 어렵고 가부장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이 주장에 따라 타투를 한 한국 여성들이 타투를 한 남성들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과 “반응이 더 호들갑스러운 것 같다” (김현경·송재은 2022)는 관찰도 이전의 출판물에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디시인사이드가 온라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타투를 지우길 바라는 연예인들에게 투표하는 것을

요구했다. 상위 5명의 연예인들 중 3명은 1, 2위에 오른 연예인들을 포함하여 모두 여성이었다. 가장 높은 순위의 연예인들은 여배우와 가수인데, 둘 다 여러 개의 타투를 가지고 있지만, 뒤이어 랭킹된 두 남성 연예인들보다 훨씬 적은 개수의 타투를 가지고 있다. 해당 남성들이 더 큰 부위와 손과 같이 더 눈에 띄는 곳에 타투가 있는 반면, 여성 연예인들은 더 정교하고 작은 타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더 강하게 비판을 받는 것 같다 (헤럴드경제 2022).

타투를 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한국의 집단주의적 성격과 병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과의 괴리, 그리고 나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성 규범과 기대에 관한 사회의 다소 보수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흥미롭다. 보수주의는 부분적으로 유교적 이상과 관련이 있는데, 한 사람의 몸은 조상이 준 것이고 따라서 신성하며 타투가 하는 방식으로 신체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형수술과 같은 다른 신체 변형들이 유교적 믿음과 그것이 신체에 가하는 변화의 영구성에 관계없이 훨씬 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미용의 이상과 성형수술의 광범위한 사용은 학계에서 더 폭넓게 논의되었고 사회에서도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형수술과 같은 신체 변형은 또한 눈썹 문신과 같은 소위 뷰티 타투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때때로 패션 타투라고 불리는 것과 차별화된다. 이 논문은 후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국 타투와 그 밖의 신체 변형을 둘러싼 담론의 차이는 논문 전반에 걸쳐 더욱 논의될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를 타투이스트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몸에 타투를 새기는 사람들인 중심 인물들이다. 논문 전반에 걸쳐 나는 주로

인터뷰에서 수집된 여성의 경험과 문학에서 발견된 일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여성의 사회적 주체성을 포함한다. 비이원성의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덜 존재하며, 인터뷰 대상자 중 그 누구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은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다. 대표성의 결여는 성별에 대한 이원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 논문을 통해 여성이 미의 이상과 같은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사회로부터 더 많은 어려움과 판단에 직면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여성 신체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에 따른 신체 개조의 증가가 사회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그것은 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문신의 형태로 영구적인 개성화를 선택하고 또한 이 관행을 그들의 직업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를 원한다. 이 논문은 젊은이들, 특히 하위문화가 개인주의와 성역할 모두에 관한 문화적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더 넓은 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타투를 한 사람들의 신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더 넓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변화의 일부인 다른 현상은 여성 운동, LGBTQIA+ 공동체, 가족으로부터 더 독립적인 경향 등이다. 타투 문화와 다른 사회적 움직임의 그룹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타투 문화 혹은 산업에 대한 참여가 완전히 자발적이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활발하다는 것이다. 타투의 불법성, 사회적 수용성 결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성불평등 문제와 같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안전 문제의 부재 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타투 산업은 하나의 하위 문화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보통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 변화가 주류 사회에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대상자와 같은 여성들은 자기 표현, 예술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저마다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이러한 관행과 타투 하위 문화에 속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 타투이스트들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사회적 기대로부터 해방시키는 전세계적인 페미니즘의 추세와 연결되어 한국의 문화적 변화의 선두에 선 선구자로 이해될 수 있다.

논문 전반에 걸쳐 이 논문을 위해 자문되고 분석된 연구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문헌고찰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 만큼 국내와 국외에서 타투, 그리고 개인주의(특히 젠더적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타투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사적인 발전에 근거한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다. 개인주의에 대한 많은 다양한 이론, 개념, 연구들 중에서 나는 존 스튜어트 밀의 Liberty 라는 개념, 잉글하트의 문화적 변화, 그리고 다른 사회에서의 개인주의에 대한 호프스테더의 측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선택했다. 이후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할 때 이러한 주제를 더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또한 문헌 검토 후, 1 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결과는 다음 섹션에 제시되며 이후에 논의되고 분석될 것이다. 결론은 도출된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고 본 논문의 단점과 향후 연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 문헌분석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여성 타투이스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관한 학술적 연구나 논문을 찾아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들이 논의되기는 했다. 다음의 두 문헌을 참고하여 타투의 역사와 인식의 변화, 타투이스트와 개인주의적 성향에 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문헌을 통해 타투이스트들의 성별에 따른 문제와 개인주의의 시선으로 보는 타투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다음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로 된 문헌을 참고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한국에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보면 외국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비학술적 자료로는 한국 타투 산업의 현황을 다룬 잡지 및 신문 기사, 여성 타투이스트들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 등이 있다. 또한 한국 타투이스트 및 타투를 한 한국 여성의 인터뷰 그리고 두 권의 *Ink on Body: 한국 여성 타투 이야기* (2022) 그리고 *문신유희: 지금, 한국의 타투문화* (2013)를 비교 및 보충 자료로 참고하였다.

1 타투의 역사와 타투의 인식 변화

일반 대중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타투는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항상 불법이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타투는 과거에 거의 보편적으로부적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Henley·Porath 2021). 이처럼 타투는 한국 역사의 여러 시기에 걸쳐 존재해 왔고,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어 왔고,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타투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히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편견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한국에서 피부에 잉크 자국을 묘사하는 용어가 '문신'으로 표현되었지만 요즘 기성세대들은 '타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타투'라는 표현은 타히티어 '타타우'에서 비롯되었는데 현재는 '타투'라고 변형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용어가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원래 한국어 단어는 문신이다. 하지만 종종 타투라는 말로 바꿔 말하기도 한다 (송남경·박숙현 2007).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타투라는 단어를 긍정적, 스타일리시함, 매력적, 섹시한 단어와 연관시키는 반면, 문신이라는 단어는 종종 부정적, 폭력적, 반사회적, 심지어 악마적인 단어와 연관시킨다 (송남경·박숙현 2007). 이러한 두 용어의 상반된 인식과 역사적 변화들로 인해, 논문 전반에 걸쳐 타투라는 용어는 더 긍정적이고 현대적인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두 용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한국의 역사를 통틀어 문신 용어의 출처와 (처음 시작된 단어)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잘 이해할 수 있다.

타투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타투에 대한 기록은 삼한시대에서 나왔다. 이 시기에 문신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은 계층 사회의 계급을 나타내는 지표이거나, 다른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동철 2007). 이러한 타투는 처벌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고려시대 걸쳐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MacFarlane 2019). 타투를 벌로 삼는 것은 한국 문신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관습으로 부모가 준 몸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사상과 관련이 있다(남기연 2012). 이외의 다른 출처에 의하면 이 관행이 조선시대 동안 다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강은주 2008).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타투를 한 것은 양반이 하인들을 영구히 표시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Park 2015). 유교와 같은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부족 사회에서 큰 집단의 사회로 변화되어지면서 타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앞서 말한 관행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헨리·포라스 (2021)의 주장과 일치한다. 야쿠자와 한국인 조직폭력배 모두 큰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면서 이미 존재하는 부정적인 타투에 대한 편견은 일제 강점기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MacFarlane 2019). 남궁호석 (2015) 또한 타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식민지 시대와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큰 역사적 사건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과 미국은 한국에 거주한 주한미군을 통해 타투를 포함한 여러가지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들의 타투는 전쟁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반공, 호국, 애국심과 관련된_타투를 새겼다. 이 시기에는 군대 내 타투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퇴역 군인들의 몸에서 타투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 관행은 그리 흔하지 않았고, 타투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지 않았다. 자주 논의되지 않고 크게 알려지지 않은 현상은 과거 여성들에게서 보인 점상문신이라 불리는 타투이다 (남궁호석 2015). 1930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 대략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관계, 친구, 가족 및 기타 유사한 유대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다. 강주은 (2008)에 따르면, 이 타투들은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를 상징하며, 주로 억압되고 통제되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작은 자유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것들이 조직폭력배나 야쿠자의 남성 신체에 타투를 한 것에 비해 훨씬 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은, 성별의 불균형적인 문화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례로 볼 수 있다.

이 타투는 일본 야쿠자의 이레즈미라는 타투와는 달리 주로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층민들의 몸에는 뚜렷한 양식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전통적인 타투 양식은 찾아볼 수 없다 (MacFarlane 2019). 오히려 역사적으로 타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문자가 사용되었다 (이동철 2007). 문자는 전통에 덜 의존하고 외부의 영향과 다양한 영감의 원천에 더 많이 의존하는 현재의 한국 타투에서 발견될 수 있는 스타일의 다양성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타투는 여성의 신체가 국가와 가부장제에 의해 통제되던 시기에 (외출 허가 필요, 강제 조혼 등)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되어 왔다 (강은주 2008). 강은주 작가는 또한 한국에서 현대 타투의 확산을 이끈 1970 년대 대만과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도 논한다. 이는 의료법에 의해 즉각 반박되어 미용 타투 시술을 금지하였다 (강은주 2008). 침습적이지만 동시에 건강과 관련이 없는 이런 종류의 시술을 의료 시술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또한 시술에 사용되는 기계의 차이는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남기연 2012). 궁극적으로 타투는 1992 년 대법원의 결정이후 의학적 절차로 분류되어 왔다 (Kwon 2022).

타투의 최근 추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상과 개인주의의 점진적인 수용, 그리고 여성의 권리와 세계화의 결과로서 2000 년대 초에 행동과 인식의 급격한 변화로 시작되었다 (남궁호석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는 다른 문화와의 경계를 없애고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Atkinson 2003). 인체의 상업화와 성, 특히 여성의 상업화는 유행의 상승에 더욱 기여했다 (Song·Park 2007). 이러한 상업화 현상은 특히 타투의 인기 초기에

타투이스트나 타투를 한 여성의 성차별화로 이어졌는데,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이 한국의 현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다 (Leader 2016). 이러한 경향은 지난 몇 년 동안 더욱 두드러졌고, 관행이 비자발적이거나 집단적인 것에서 개인의 선택과 표현 수단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폭력배와 관련된 위협적인 그림에서 더 장식적이고 패션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이미지를 전환했다. 주디 박 (2015)는 이러한 변화가 허무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및 세계적 추세에 대한 지향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맥팔레인 (2019)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반문화의 상징이 아니라 보다 세계화되고 발전된 사회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남궁호석 (2015)는 "문신은 각각 시대가 구성하는 권력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고 집단에 의해 유지되기에 단독으로서의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263)라고 주장하며 타투가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더 깊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한다는 주장에 기여한다.

특정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타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과 열정은 일부 사람들에 국한되고 일탈과 연관된 새로운 하위 문화로 묘사된다 (강은주 2008). 캐임브리지 사전(2023)에 따르면 하위문화는 남아있는 사회와는 다른 집단의 생활방식, 관습, 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정의는 개인주의와 연관된 주류사회와의 차이점과 다른 종류의 집단주의이자 사회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형태인 집단 내의 일관성을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에 앳킨슨 (2003)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타투 장면이 일관된 하위 문화라기보다는 오히려 형상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하위문화의 문제는 소비문화의 맥락에서 소비주의로서의 자신의 신체를 변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Bjerrisgaard·Kjeldgaard·Bengtsson 2013). 타투와 문신 두

용어의 공통적인 부분은 타투를 한 사람들이 하위 문화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그 존재에 상관없이 주류 사회의 벗어난 부류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Song·Park 2007).

이런 맥락에서 언급할 만한 것은 또 다른 신체에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포스트모던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한 성형수술이다. 쌍꺼풀 수술 같은 시술은 신체를 변화시키지만 순응주의를 위해 하는 것으로 사회적 미의 기준에 따르기 위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Henley·Porath 2021). 이러한 과정은 타투와는 매우 다르게 인식되지만, 둘 다 겉보기에는 자신의 몸에 대한 특정한 권리로 연결될 수 있다. 타투의 경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성형수술은 종종 반대로 행해지고 사회의 미적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위해서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당사자들에게 있는지 사회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 사이에서 더 흔하며, 이는 순응의 맥락에서 여성들이 순응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즐거움을 위해 종종 외모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Hawkes·Senn·Thorn 2004).

해외에서 행해진 몇몇 연구는 타투에 대한 일반적인 발달과 인식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2000년대 한국의 타투 급증에 비해 서구는 1980년대 이전의 타투 르네상스를 겪었는데, 이 시기에 다양한 전통 타투 스타일과 예술가들의 기술이 현대적인 변화와 함께 유행을 되살려 마침내 주류 사회에 침투했다 (Larsen·Patterson·Markham 2014). 미국은 타투가 처음에는 사회적 낙인과 일탈과 관련된_것이라는 문화에 중심에 있었다. 유명인사들과 주류 언론에서 이러한 문화의 타투를 "symbolic resources for identity practices"으로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

(Larsen·Patterson·Markham 2014). 호크스·센·손 (2004)은 타투를 한 여성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역사적 현상을 논의하며, 타투를 한 남성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그런 관행은 여성에게 훨씬 덜 받아들여졌다고 결론 내렸다. 더 나아가 그들의 연구는 더 보수적인 성 태도를 가진 참가자들이 타투를 한 여성들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슨·패터슨·마컴 (2014) 또한 타투를 한 여성이 전통적으로 여성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반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다른 연구들은 또한 남성들이 여성의 신체의 의미를 통제하고 성적인 기준을 부과하는 등 아래쪽의 타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소위 "트램프 스탬프"의 예로 여성들이 더 자주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Leader 2016).

2 개인주의 개념

이 논문은 타투와 개인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주의라는 용어는 다양한 학문적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 용어가 논문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음에서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주의를 다루는 몇 가지 이론을 탐구할 것이다. 동시에, 타투는 개인주의가 아닌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밟기로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일찍이 1859 년에 개인주의를 논한 유명한 사상가는 존 스튜어트 밀이다. 밀은 자유를 인간 복지의 요소 중 하나로 부르는 것에 대해 논의하며, 자유는 자신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Mill

2001),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Thilly 1923). 밀은 개인들이 단지 그들 이전 사람들의 경험과 그들로부터 추론하는 것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들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Mill 2001). 저자는 다른 사람들(또는 제도, 종교 등)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인의 욕망과 충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Mill 2001). 밀은 이 문제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논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이도록 지시하는 패션과 트렌드를 논의할 때 외모에서 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한다. 궁극적으로, 밀은 개성과 발달을 동일시하고 삶의 다른 측면에서 그것들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자유에 대한 이 토론은 개인과 관련된 것과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사이의 경계가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Thilly 1923).

Geert Hofstede는 개인주의를 널리 논의한 또 다른 학자다. 호프스테더가 (집단주의와 반대로) 개인주의의 차원을 포함하는 그의 이론과 문화의 측정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가리키며 성별을 구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동안, 논의할 가치가 있다. 호프스테더는 두 개의 대립하는 측면을 각각 가지고 여러 차원을 논의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 사회 내의 개인이 채택하는 자기 구성의 유형, 독립적이거나 상호의존적이며 개별적인 수준에서 자기중심적이거나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Hofstede 2001). 이 책에 포함된 연구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인주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동양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오히려 집단주의적인 면에 있다고 예측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인주의 지수 가치에서 53 개국 중 43 위를 차지하고 있다 (Hofstede 2001). 이 책은 나아가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특정한 가족 동태나 효행과 같은 동아시아의 이념과 관행은 대개 더 강한 집단주의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집단주의의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차원의 호프스테더 측정은 권위, 부, 권력의 형태로 인간의 불평등으로 정의되는 위계주의(power distance)이다 (Hofstede 2001). 한국은 고도의 위계 사회로 간주되는데, 이는 호프스테더가 제시하는 자료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위계주의 수치는 평균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Hofstede 2001). 위계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는 호프스테더가 이러한 위계주의와 집단주의는_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중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inkov et al. 2017). 저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약한 내부 신뢰성으로 이어지는 사회 내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았다 (Minkov et al. 2017).

잉글하트와 웰젤 (2005)은 전통적 가치 대 세속적 이성적 가치, 생존 가치 대 자기 표현 가치의 차원에서 국가의 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를 지도에 배치하기 위해 가치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잉글하트와 웰젤은 이 방법을 주로 역사적 변화와 지속성을 추적하는 데 사용했는데, 산업과 산업 이후의 현대화는 농업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서비스로의 전환은 자기 표현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Inglehart·Welzel 2005). 저자들은 나아가 종교나 강력한 정치이념 같은 특정한 역사적 요소들이 산업 발전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문화 지도를 통해 보여준다. 이 지도에 따르면 유교

국가인 일본, 중국, 한국, 대만은 세속적 이성적 가치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만 (일본에 대한 기대는) 자기 표현 가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생존에서 자기 표현으로의 전환, 또는 때때로 웰빙으로 논의되는 것은 개인주의와 관련이 있다 (Hofstede 2001). 따라서 문화지도에 반영된 결과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논할 때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이다.

호프스테더가 논의한 IBM 연구와 위에서 언급한 문화지도는 한국을 보다 집단주의적인 측면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한국이 집단주의 문화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우리'에 대한 의식이 강한 몇 가지 역사적 요인 때문에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Kashima et al. 1995).

장경섭·송민영(2010)은 그들의 글 『The stranded individualis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은 한국의 역사적, 공간적으로 압축되고 압축된 현대화 하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삶과 삶의 선택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는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들은 개인주의를 부여받지 못한 채 (종종 위험 회피적으로 남아있기 위해) 개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은 가족 내에서 기능적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부 가부장적 규범의 약화와 상관없이 사회적 종속성을 유지한다 (Chang·Song 2010). 이러한 고정된 가족적 역할과 사회적 종속성은 여성이 개인주의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데 기여한다(자신의 삶의 선택에 따라. 이 글은 주로 가족 역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성들이 가족의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문헌들을 요약하여, 이 논문은 다음에서 개인주의라는 용어를 이데올로기 중심주의와 사회로부터의 낮은 의존성의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의 기호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몇몇 연구들은 개인주의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역사적, 문화적 요인과 가족의 역동성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일부 사람들에 의해 관찰된 지속적인 변화는 여성 타투이스트들의 시간을 통해 논의될 것이다.

타투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여성에 대한 개인주의적 행동의 수용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타투는 (특정 맥락에서) 개인주의의 표지로 이해될 수 있고 심지어는 반항이나 권리를 위한 싸움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요약할 수 있다. 미적인 이유로, 특히 미의 이상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개조하는 관행은 개인도 외모 면에서 개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밀의 주장과 맞아떨어진다. 이는 타투를 보다 집단주의적이거나 순응적인 목적을 제공하는 성형수술과 비교할 때 특히 명백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아래에서 더 논의된다. 비록 때때로 유행을 따르지만, 문신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수정함으로써 개인의 주권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를 나타낸다. 특히 여성들에게 타투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밀이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또 다른 요점은 문신이 신체 개조를 받기로 선택한 사람의 신체에 제한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신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관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타투(특히 여성의 신체)를 개성의 표시이자 문화와 사회의 변화로 보고 있지만, 개인주의가 다수의 참가자들에게는 시술을 하거나 받는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논문은 아래의 이러한 다양한 동기와 추론을 추가로 탐구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의식적이든 잠재 의식적이든 타투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사회 내에서 보다 독립적인 행동, 삶의 선택, 외모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3 미디어를 통한 타투의 이미지화

마지막으로, 미디어로 보는 타투와 미디어가 타투 합법화 주제를 둘러싼 논의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도 관찰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텔레비전에 나오면 타투를를 가리거나 검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삭제는 타투가 본질적으로 나쁘고 타투를 한 사람들이 역할 모델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화하다. 타투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문신의 합법화가 진행 중인 논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미디어 표현은 서로 다른 기사에서 논의되어 온 미국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발전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문신의 정상화에 기여한 것은 미디어(학술적 담론뿐만 아니라)에서 문신의 존재가 증가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Atkinson 2003). 앳킨슨 (2003)은 미디어 표현이 전통적인 신체 규범의 붕괴에 기여하여 신체의 변화에 어떻게 더 넓은 수용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 코숫 (2006)은 또한 미국과 서구 국가에서는 타투를 정상화하고 하위 문화의 이미지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린이를 위한 임시 스티커 타투뿐만 아니라 어린이 미디어에 타투가 보여진다고 논한다. 한편, 저자는 이 표현이 타투가 예술 형태로 인식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타투의 상품화를 상징한다고도 논한다 (Kosut 2006). 리더 (2016)는 다양한 저자들이 논의한 장점과 상관없이 많은 미디어 표현(특히 최근의 언론 표현)이 문신을 하거나 문신을 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객관화한다고 주장한다.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 문신에 대한 언론의 표현은 주로 SNS와 때때로 합법화에 대한 논의에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의 도입부에서 짧게 논의되고 연예인들이 싫어하는 문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온라인 기사가 한 예가 될 것이다 (헤럴드경제 2022). 이런 종류의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는 종종 논쟁거리로 논의되기 때문에 드문 일이 아니다. 타투에 대한 또 다른 일반적인 미디어 표현 유형은 합법화에 대한 논의이다. 많은 기사들이 이 문제를 다소 중립적으로 논의하고 입법의 현재 상태나 관련 캠페인에 대해 보도한다. 주목할 점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합법화에 대한 논의 중 하나가 한 국회의원이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사진을 사용하면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21). 국회의원이 사진을 사용한 것은 보여준 의원의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팬들은 뮤지션이 마지못해 정치에 끌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경 2021). 한편, 한국에는 타투를 한 여성들이 더 많고 많은 여성들이 합법화 운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음악가의 사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의문이 든다 (김혜진 2021).

한국의 타투에 대한 주제에 관한 다른 언론 보도는 주로 한국 밖의 Vice, i-D, 그리고 한국의 여성 타투이스트와 같은 주제에 대한 몇 개의 기사와 짧은 다큐멘터리를 출판한 YouTube 채널 Asian Boss 와 같은 더 작고 더 독립적인 뉴스 매체에 의한 것이다, 한국에서 타투를 많이 한 여성에 대한 인식과 성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다른 주제들도 다룬다.

점점 타투를 한 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대부분의 한국 미디어에서의 제한된 노출은 타투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불 균형적인 미디어의 제한성은 대다수 미디어와 같은 큰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기성 (남성) 세대의 수용 부족이 반영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위에서 논의된 문헌 검토와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질문과 상황과 인터뷰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질문을 진행했다 (semi-structured interviews). 인터뷰는 13 명의 한국 여성 타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맥이나 SNS (Instagram)를 통해 선정했다. 인스타그램은 한국의 타투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잠재 고객들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촉한 잠재적인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 위해 사용되었고,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터뷰에 커피나 디저트로 보상을 받았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잠재적인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여성)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품 사진만

올리고 자신의 사진은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성별을 파악하고 온라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연락이 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과 자신의 사진을 올리지 않는 이유들은 몇몇 인터뷰에서도 논의되었다. 60 명의 잠재적인 인터뷰 대상자들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해외에 있고, 바쁘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참여에 동의한 작가들을 찾기 어렵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은 이 작품에 이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직업의 불법성과 이에 따른 작가들의 고민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한 아티스트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현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문신계의 중심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기반을 둔 몇몇 잠재적인 인터뷰 대상자들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서울에서 일한다.

인터뷰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인터뷰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얻기 위해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과 사전 대화(녹음되지 않음)가 진행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사전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량적 방법론보다 질적 방법론을 선택했다. 연구의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의 모든 예술가들을 완전히 대표하지는 않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의 참가자들과의 질적 인터뷰를 선택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여성 예술가들이 경험한 다양한 경험과 이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예비토론을 바탕으로 10 개 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했다. 질문은 비교적 개방적이며, 인터뷰 대상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인터뷰 대상자에 맞춰

자율적으로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언급한 특정 사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주어진 주제와 관련하여 그들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추가로 전하기도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터뷰 모두 동일한 질문을 했지만, 직접 인터뷰에서는 후속 질문 등이 이뤄졌다. 온라인 형식은 익명성과 질문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더 많다는 장점이 있었을 수 있지만, 대면 형식은 후속 질문과 같이 추가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인터뷰 지침으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자기소개해주세요. (성 정체성, 나이, 타투이스트로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등)
- 타투는 ○○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 어떻게 타투이스트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고, 일을 시작하셨을 때 어려움은 없어셨나요?
- 사람들이 ○○ 님의 직업을 알게 되거나 타투를 볼 때 다르게 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 타투 아티스트로서 (남성 타투이스트에 비해)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 만약 해외에서 타투를 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들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 ○○님의 성별이 고객과 사회가 본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의 문신을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할 때가 있으십니까? 여성 고객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는데 더 신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타투 산업의 현주소는 한국 사회에 대해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타투 산업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몇 가지 질문은 다소 광범위하며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자기 소개이자 인터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 연구자가 외모에 따라 성별 정체성을 추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 시작 시 추가로 인터뷰 대상자에게 성별 정체성을 진술하도록 요청한다. 질문들은 자신의 경험을 재조명하는 것에서부터 더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한국 사회와 성 문제와의 더 넓은 연관성에 이르기까지 복잡성이 증가하는 순서로 출제된다. 마지막 질문으로 인터뷰 대상자는 그때까지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추가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자극했고, 더 다양한 대답과 다른 경험들을 추가로 답하게 했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자이자 필자인 인터뷰 진행자는 인터뷰 진행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으로 참여자들이 보다 편안한 인터뷰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rosius, Haas, Koschel 2016). 동일한 인터뷰가 모든 인터뷰를 실시하고 모든 인터뷰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대면인터뷰 시 특정 후속 질문 제외), 인터뷰관의 답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비록 연구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인터뷰관들이 같은 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고 편안했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제 3 자를 인터뷰하지 않기로 했다. 서면 방식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대면 방식의 인터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 인터뷰(5 회 인터뷰)을 실시하는 시간은 23 분에서 38 분으로 평균 30 분 정도이며, 온라인 인터뷰는 텍스트 형태로 진행되며 응답 길이도 다양하다. 본 논문의 부록에서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를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기록 및 전사하였으며, 텍스트 형태로 실시한 인터뷰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대면 및 온라인 인터뷰는 2022 년 9 월 말부터 2023 년 3 월 초까지 진행됐다.

여성 타투이스트와 남성 타투이스트 모두의 경험과 사회에서 받는 느낌을 비교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는 것이 고려되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여성 아티스트들만 인터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저자는 이 문제와 성별에 대한 지나치게 이원적인 접근을 피하고 싶었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논바이너리 아니라고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러한 경험들은 포함될 수 없었고, 이 연구에서 모든 성별 정체성의 범위의 예술가들에 대한 개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논문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특정 직업과 상황에서 여성이 경험한 것이므로 남성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절반보다는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논의하고 도출할 때, 인터뷰의 인용문은 익명으로 사용될 것이다. 참가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불법적인 근무 조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법적 이름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예명이 인터뷰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각각의 인터뷰에 할당된 번호로 대체될 것이다.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뷰 대상자들이 제시한 답변을 통해 보여주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도출하기 위해 내용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비교하고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진술과 경험을 찾는 데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토론과 분석에서 한 번 또는 몇 번만 언급된 경험과 의견도 고려될 것이며, 같은 이유로 더 큰 데이터 세트가 필요했을 정량적 분석보다 질적 내용 분석을 선택하였다. 각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동료 여성 예술가들의 경험을 논의했으며, 모든 경험을 검증하고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일반화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IV 연구결과

여성으로 확인된 모든 인터뷰 대상자는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참가자의 대부분은 25 세와 29 세의 연령대에서 찾을 수 있으며, 2 명의 참가자는 30 대 중반이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다년간 현장 근무 경험은 그들이 어떤 변화를 관찰했는지,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시작한 해에 현장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타투이스트로 일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응답자들의 근무기간은 약 1 년에서 13 년으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약 2-3 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2020 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타투가 자신의 전업이라고 말했고, 한 참가자 (이전에 전업을 했던 분)는 지금은 취미로, 다른 참가자는 주말에

취미이자 부업으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며 나중에 자신의 전업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수 인터뷰 대상자들의 배경과 관련된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항상 예술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 또는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했던 것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예술을 하면서, 특히 사업 내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말했고, 그래서 보다 본인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타투 예술가가 되는 것에 의지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일부는 애니메이션, 디자인, 패션 등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분야에서 이전에 일했거나 현업으로 여전히 근무 중에 있었다. 비록 다른 직업과 달리 타투는 한국에서 불법이고 인터뷰에서 논의된 다른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였다. 이와 같이 한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저는 어릴 때부터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 그리고 그런 순수 작가로 뭔가 컨템퍼러리 쪽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냥 진짜 전통적으로 그냥 진짜 그런 그림 작가 뭔가 그런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졸업하고 한국에서 그게 정말 돈벌이가 정말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그런 뭔가 분야였어요. (인터뷰 대상자 1)

인터뷰 대상자들이 타투를 업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이 예술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은 반면, 일부는 타투가 돈을 버는 쉬운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과 이전에 예술에 관심이 없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경쟁은 한국 사회의 매우 일반적인 특징이며 타투 산업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 특히 예술가들이

주로 서울, 서울 안에서도 인터뷰 대상자들이 일하는 많은 스튜디오들이 위치이기도 한 홍대 주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투는 직업뿐만 아니라 소비와 선호하는 스타일에 대한 트렌드로 논의된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인기 있는 스타일과 모티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행을 좀 많이 따라가는 편이라서 어떤 연예인이 한 타투를 한다거나 나비가 유행이면 나비를 한다거나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시기마다 되게 똑같은 타투들을 받으러 오세요" (인터뷰 대상자 10). 이러한 트렌드 지향적 소비주의는 주류에서 타투를 보여주는 연예인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한 인터뷰 대상자에 따르면 "한국 연예인들 (대표적으로 이효리, 박재범) 이 타투를 하고 이 타투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지고 대중화가 되었어도, 사회적인 법이 생기고 편견이 없어질 때 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8). 이 행동이 타투 현장을 이해하는 방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에서 더 논의된다.

타투가 주류사회와 관련하여 보여지는 방식은 타투이스트들과 타투를 하는 사람들 (특히 이 경우 여성)의 일반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트렌드와 관련해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타투가 매우 인기 있고 타투 스튜디오가 많은 홍대와 이태원 과 같은 지역에서 다르게 인식되고 대우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은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몇몇 참가자들은 나이든 분들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 토론했고, 보통 친구들이 매우 지지적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이 타투를 만지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대중교통에서의 경험은 한 참가자가 이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매우 일반적이었다: "얼굴에 타투가 있는 여성 타투이스트 친구는 지하철을 잘 못타요. 한번은 지하철에서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이 말도 없이 타투를 만지며 이거 지워지냐고 물어봤다고해요.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인터뷰 대상자 13). 이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혹은 애초에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참가자들은 공공장소나 더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장소에서 타투를 숨긴다고 말했다. “일단 저는 계약서 쓰는 자리나 아니면 좀 권위 있는 사람이랑 미팅할 때는 좀 긴팔을 타투가 좀 안 보이게 하는 편이에요. 약간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나 집거래나 아니면 교수님과 미팅할 때에는 약간 아무래도 제가 동등한 관계가 되기가 어렵다” (인터뷰 대상자 11). 반면에, 일부 참가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그들은 타투를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험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이 없는 아티스트들이 주로 홍대 지역에 있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많은 타투이스트들은 사회가 자신의 직업과 몸에 타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한 타투이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보여주는 게 상관이 없는데 뭔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될 것 같은 느낌에 그게 싫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엄청 쳐다보겠지 이거를 반팔을 입고 갔을 때 그래서 여름 내내 긴팔을 입고 다녔어요” (인터뷰 대상자 2).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과 타투를 한 여성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그들의 타투를 숨기는 경향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부 타투이스트들이 타투를 숨기는 두 가지 주요 이유와 맥락은 앞서 언급한 전문적/형식적 자리 또는 가족을 만날 때와 같은 상황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신체 예술의 은닉은 좀 더 전문적으로 인식되고 더 존중 받고 싶을 때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나이든 사람들과 접촉할 때 강화된다. 가족의 맥락을 논할 때, 그 이유는 부모들이 단순히 타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모호하다: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어릴때 타투는 받은 적 없지만 […]” (인터뷰 대상자 7). 다소 가까운 가족 관계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의 이러한 바람에 관심을 기울이며 타투를 하지 않거나 부모님에게 숨긴다. 마찬가지로, 김현경·송재은의 (2022) 책의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타투로 인해 직장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을 한 여성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사 사람들이 내 뒤에서 말이 많았다고 들었다. '목에 고양이 있는애'라고도 했다더라.”

인터뷰 대상자들이 발표한 몇 가지 진술은 사회가 여성에 대한 특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들의 직업과 그들 자신의 타투에 관해 그들에게 말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사회에서 여성이 가져야 할 기대되는 역할과 모순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반응이 타투를 한 남성들이 받는 반응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 굉장히 다르게 인식됩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며 ‘결혼은 어떻게 하냐’ ‘부모님 한테 허락받았나’ ‘드레스 입을때 문신은 어떻게 하냐’ ‘결혼 후 남성쪽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등의 배우자와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 결혼과 배우자와 연관되어 질문받는 경우는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은 어쩌냐 조폭이냐 등의 남성이라면 사회성에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남성 타투이스트 조차도 본인이 만나는 여성은 타투없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 하기도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8)

김현경과 송재은 (2022) 책의 인터뷰는 시어머니의 의견도 포함함으로써 이 생각을 강화한다. 한 에세이 작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듯이 “나중에 미래의 시어머니가 싫어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사돈 등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여성의 사회적 기회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비슷하게, 한 인터뷰 대상자는 그녀가 타투를 숨기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유일한 예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난 것을 언급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한 이러한 통제는 누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는 길거리 인터뷰에서 자신이나 부모가 (많은) 타투를 한 애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더욱 강조된다 (DKDTV 2018). 이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의견이 매우 유사하였다 (DKDKTV 2018).

밀(2001)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개인의 주권 (sovereignty of the individual over itself)"과는 달리, 인터뷰 대상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진술은 여성의 신체 타투에 관한 한 단순히 여성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과 남성 고객이 타투를 선택하는 방법과 특히 타투의 배치를 비교할 때, 한 인터뷰 대상자는 남성은 더 자유롭고 더 눈에 띄는 타투를 선택하는 반면에 주목하면서 “여자분들은 여기 [위팔] 위에까지만 자기 몸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대상자 4).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이 남성과 여성의 타투 선택 행동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직장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인용문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뷰에 응한 다른 타투이스트들은 그녀의 타투가 의미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장 크게 생각이 나는 거는 자기 몸 결정권인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11).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것 외에도, 아티스트들은 타투와 관련된 다른 의미들을 묘사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타투를 하는 것과 자신의 몸에 타투를 하는 것 모두와 관련이 있다. 일부 타투이스트들에게 타투가 갖는 의미는 앞서 논의된 예술로 돈을 벌 수 있거나 직업으로 예술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한 예술가가 말했듯이: "타투는 저한테 제가 계속 이 예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2).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그 의미는 예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예술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표현하고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저에게 활력소이자,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5). 특히 몇몇 타투이스트들은 그녀에게 타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타투란 저에겐… 저에게 타투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평소에도 작업하고 도안그리고 하는 것이 타투와 관련된 것만 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6)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되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준 값진 것입니다" (인터뷰 대상자 9)라고 말하면서 보여주었다. 'Ink on Body'(2022)라는 책에서 타투를 한 여성들은 정신건강 문제, 큰 삶의 변화, 삶에 갇혀 있다는 느낌 등 어려운 상황에서 타투가 자신에게 끼친 개인적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타투가 어떻게 그들이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원래 내 몸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타투를 통해 내 신체를 더 좋아하게 됐다" (김현경, 송재은 2022). 반면에, 어떤 인터뷰 대상자들은 타투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하지만 그것을 액세서리나 패션 아이템과 비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 분야에서 일하기를 선택하는 데 기여한 직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술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장점 중 하나이며, 다른 이유로는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등의 유동적인 스케줄이 있다.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이 자유를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한다 "타투이스트는 내 생활영역을 자유롭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 대상자 9).

타투이스트들이 타투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 직업의 이점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몇몇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꼈으며, 나아가 남성 타투이스트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인터뷰 대상자 중 두 명의 다음 인용문은 여성과 남성 타투이스트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나타낸다.

> 아무래도 약간 좀 더 이렇게 말하면 말해도 되나 약간 싸 보인다. 약간 이렇게 좀 남자 타투이스트 분들 혹은 남자 그냥 타투를 하신 분들은 약간 남자니까 그럴 수 있지 그냥 타투 많은 사람이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자면 약간 약간 좀 안 좋은 곳에서 일하나 약간 그런 인식이 조금 더 있고 되게 남자분들 이제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나 혹은 그런 때에도 약간 저를 쉽게 보는 조금 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인터뷰 대상자 10)

그런데 타투가 많은 남자한테도 무턱대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훈계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거에요. 여성인데 타투가 많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에게 따가운 시선과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거죠. (인터뷰 대상자 13)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종종 남성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그들이 여성 예술가로서 다르게 대우받거나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엄청 젠틀하시고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려해주시거나 쿨하신 부분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6)와 같이 긍정적인 남성 고객들을 경험하였다고 느꼈다. 반면에 다른 타투이스트들은 남성 고객들과의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몇 타투이스트들은 그들의 직업과 타투 때문에 남자들에게 쉽게 인식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식은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이 경험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남성들의 행동에서 더 잘 나타났다.

만약에 손님이 고백을 하면 고백하는 일도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진짜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만약에 내가 솔직히 마음에 들어도 만약에 뭐 다른 사회적으로 우리가 뭔가 우러러보는 대상 예를 들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 뭐 이런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진짜 나한테 이렇게 문턱이 낮게 대할 수 있는 걸까 뭔가 계속 뭔가 손님들 태도에서 저한테… 약간 이런 문턱 낮은 행위나 말을 언행을 할 때면 자극 지심처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1)

이러한 행동은 몇몇 타투이스트들에 의해 언급되었고 그들이 전문가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둘 다 존중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준다. 게다가,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한 여성 고객이 (타투가 많은) 남자친구가 싫어하기 때문에 새로 받으러 온 타투가 너무 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한 몇몇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것은 다른 성별에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이중 기준을 보여준다.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은 괴롭힘 사례뿐만 아니라 무례함을 유사하게 보여주는 다른 행동들에 대해 언급했다.

> 근데 갑자기 내 성기에 파워라고 레터링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특수 부위는 거기는 안 한다 이러니까 갑자기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그거를 세워놓고 여러 장 찍어서 사진을 막 보냈대요 근데 그분은 바로 이 보고 싶지 않은 사진을 보고 성희롱을 받았고 하는데… 죄송한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직업 의식이 부족하다고 욕을 먹은 거예요. (인터뷰 대상자 11)

위에서 언급한 남성 고객과의 부적절한 경험이 많은 여성 타투이스트들은 남성 고객과 상호작용할 때 다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예방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저도 그냥 남자가 온다고 하면 무서워요. 일단 좀 각을 재보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옷을 신경 써서 입어요” (인터뷰 대상자 2). 이러한 이유로 “여성 타투이스트 분들 경우에는 여성만 받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 (인터뷰 대상자 10). 2020년 유튜브 채널 아시안 보스와 인터뷰한 여성 타투이스트 지화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화는 자신의 직업에서 유일한 부정적 경험으로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거나 모텔에서 타투를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스토킹의 피해자가 되는 등 남성 고객의 부적절한 행동을

논하며 이 문제를 여성이라는 것과 연관시킨다 (Asian Boss 2020). 여성 타투이스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추가적인 진술은 특히 남성 고객들과의 사건 예방과 증명을 위해 CCTV 의 사용을 논의하는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이다.

> 이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작업실을 이렇게 보시더니 여기 근데 CCTV 가 없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약간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다른 친구 남자의 친구를 부른다거나 그때 이후로 이제 CCTV 를 설치를 했거든요. (인터뷰 대상자 10)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타투의 불법성이 근무 상황에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일부 고객들은 불법성에 대한 지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타투 시술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이러한 위협은 타투가 여전히 의료 시술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능하며, 따라서 무면허 타투이스트에게 타투를 한 사람은 시술에 동의했음에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남기연 2012).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문제를 “그 안에서 당연히 그런 법을 울타리에 못 있으니까 젠더 문제도 당연히 나타나고 한국은 안 그래도 그런 젠더 문제가 있는데 법의 테두리에 있지 않다면 그 젠더 문제, 응… 뭔가 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인터뷰 대상자 1)로 요약한다.

불법성의 측면은 또한 타투이스트의 작품과 결과적으로 아티스트 자신의 작품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맥락에서 논의된다. 이것은 타투가 한국 밖의 나라들에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들이 해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분명해진다. “한국 외에는 타투가

불법인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투를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대상자 5). 이 진술은 타투가 부정적인 관행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 사용되는 "body art"과 같은 용어와 반대되는 예술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게다가, 한 타투이스트는 그녀가 “타투이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느낄 수 없었”(인터뷰 대상자 8)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타투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 이유 중 하나로, 한국 예술가들이 해외에서 '게스트워크'를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상주 예술가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인기가 있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소원이나 미래에 해외로 나갈 계획을 명시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한 인터뷰 대상자가 한국 타투의 아이러니한 국제적 인기를 언급한 것이다: “되게 웃긴 게 해외에서는 한국 작업자가 짱이라고 막 치켜세우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터뷰 대상자 2). 해외 경험이 있는 타투이스트들은 어떻게 인식과 합법성의 차이가 한국과 인터뷰 대상자들이 근무했던 다른 아시아 국가, 미국,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의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그들은 디자인과 배치 둘 다의 더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 예술가는 “한국인들은 하기 전에 막 사진을 찍어서 친구한테 계속 보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친구한테 상의를 많이 해요” (인터뷰 대상자 4)에 주목한다. 앞의 인용구는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을 시사한다. 해외 소비자들은 타투의 크기와 같이 타투를 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보다 타투의 수요층이 많고, 타투에 대한 편견이 없다 보니 큰 작업의 수요나 작업자체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6).

게다가 한 인터뷰 대상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이점 또한 느껴지지 않았으며[…]” (인터뷰 대상자 8)를 지적하며 이것이 한국의 상황과 다른 점임을 암시한다.

한국에서 타투의 법적 상황은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이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에 기여한다. 불법성 때문에 교육과 같은 것들을 비롯한 타투이스트가 될 수 있는 규정과 제도가 미비하다. 오늘날 일부 비 공인 학교들이 존재하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은 불과 몇 년 전의 상황뿐 만 아니라 공인되고 표준화된 교육이 없는 것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 선생님이 여러 명 있는 타투 학원도 있고, 개인 작업자가 본인 작업실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유명한 학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림전공자의 포트폴리오만 받는 면접까지 봅니다. 수강료가 엄청 비싼 대신 그만큼의 정보와 스킬, 홍보까지 완벽하게 지원해줍니다. (인터뷰 대상자 5)

위의 인용문은 학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것은 또한 금전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타투이스트로서 교육을 받는 다른 방법들이 질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를 몇 년 전 상황과 비교하면 피면접자들은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 획일성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제가 4년 전에 배운 거라서 그때는 타투 학원 자체가 되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술했거든요” (인터뷰 대상자 10).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이 합법화와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인용문에 전체 문제가 잘 요약되어 있다.

> 능력 있는 타투이스트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타투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법화에 대한 법안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하나의 문화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9)

참가자들 중 몇몇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한국의 현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직업이 합법화되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타투이스트와 고객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일부 사람들은 더 희망적으로 표현하기를 바라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러한 발전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좀 더 일반화된 방식으로 일부 참가자들은 사회에서 더 많은 관용을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표현했다: "그냥 생각이 다른 서로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지거나, 나누지 않고 모두가 이해하고 어울려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6). 참가자 중 한 명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여성 타투이스트들을 지원하고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부분 타투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한 참가자는 여성 타투이스트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전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성 타투이스트들이 궁극적으로 기존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기술과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소망하였다.

V 고찰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이전 섹션에서 논의된 이슈들은 우리가 한국의 타투 산업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논문은 한국 여성 타투이스트를 개인주의와 문화적 변화의 선구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더욱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보다 폭넓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인터뷰 중에 나온 몇 가지 다른 점들은 사회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어떤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개인주의의 증가를 보여주는지에 대해 논의될 것이다.

이전 섹션에서 관찰된 한 가지 현상은 타투가 한국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몇 안 되는 직업 선택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이 분야의 합법적인 직업 기회의 부족을 보여준다. 일부 참가자들의 말처럼 디자인과 같은 분야의 직업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그들이 자신의 예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직업에 초점을 맞춘 한국 문화의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개인 표현을 위한 공간 (특히 직업 측면에서)의 부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회로부터의 개인주의를 거부당한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예술과 같은 수단(자신의 창조물이든 몸이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는 위에서 논의한 개인주의 이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하위문화가 여전히 개인주의에 기반한 개성의 존재여부에 관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인적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직업에 대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은 한국의 급속한 현대화와 산업화와 연관이 있다. 사회규범, 혹은 관습적 규범들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의 양상은 고용시장을 논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에서도 나타난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그들의 외모와 관련된 다른 규칙들을 따라야 하는 몇 년의 초, 중, 고등 교육 기간 동안 특히 (육체적) 획일성이 강화된다 (Park 2015).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획일성은 아름다움의 이상과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같은 기대 때문에 여성들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한국에서 특히 교육과 취업에 존재하는

경쟁력은 타투 산업의 상황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 문제는 일부 참가자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타투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규제의 부재 및 타투의 유행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들에게 더 큰 경쟁과 더 낮은 가격으로 이어진다. 불법의 양상이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경쟁의 양상은 넓은 차원에서 볼 수 있으며, 학교에 있어서도 교육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교육경쟁의 문제와 다양한 교육유형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한편, 많은 참가자들은 유행의 측면과 증가하는 인기와 타투의 대표성에 대해 논의했다. 1990년대에는 일본에서 먼저 타투가 유행을 거스르는 운동으로 인기를 끄는 것 중 하나였지만, 요즘은 타투의 영역 내에서 더 많은 유행이 있다 (Henley·Porath 2021). 트렌드로서의 타투 현상은 두 가지 상반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로, 타투가 유행이고 유명인사들이 이 유행을 주류로 가져오는 것은 타투이스트의 직업과 관행의 정상화와 더 나은 수용에 기여한다. 그것은 타투의 이미지를 조폭과 야쿠자에서 성공한 연예인에 대한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로, 타투 스타일과 모티브는 유행에 따라 그리고 유명인사들을 따르는 것은 타투를 자기 표현의 한 형태로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며 오히려 순응을 추구하는 관행을 가리킨다. 따라서 타투가 개인적인 이유 그리고 자기 표현을 위해 (개인주의) 또는 사회에서 유행하고 인기 있는 것과 일치하는 이유 (집단주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구별해야 한다. 이것은 타투 현장과 사업이 하위 문화인지에 대한 질문과 더 관련이 있다. 하위문화 내에서는 집단에 속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순응성이 요구되지만, 대중적인 타투 모티브의 영향이 주류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순응성이 하위문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 또한, 이전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타투 현장에 진입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문제는 타투의 소비자주의적 측면이 현장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희석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소수의 타투이스트들과 고객들의 행동일 뿐이며, 그 현장은 여전히 하위 문화로 분류될 수 있다. 타투의 개인적인 특성은 (적합성보다는) 타투가 사회 내에서의 어느 정도까지 하위문화로 분류될 수 있는지 그 위치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또한 타투 현장을 펑크와 메탈 하위 문화에 비유했는데, 두 현장 모두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언더그라운드적이고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문화기 때문이다.

타투 문화의 주류는 사람들이 타투를 한 몸을 다양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타투를 한 여성의 수용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반면에, 타투가 오히려 유행으로 인식된다면, 그들의 착용자들은 타투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지울 수 없는 액세서리라고 가정하고 미래에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이 문제는 『An Ironic Fad』 (Kosut 2006) 기사에서 논의된다. 이 글에서 저자는 타투의 영구적인 측면을 상품화 및 유행과 대조한다.

앞 장에서 제시한 인용문에서 보듯이 타투를 한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타투이스트들에게 사회에서 여성들이 기대하는 역할인 결혼이나 엄마가 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한편으로, 이러한 질문들은 모든 여성들이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싶어하고 충족시켜야 한다고 가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타투를 한 여성들이 동등하게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변화하는 가족과 사회 구조에 맞게 개인화되어야 했지만 개인주의는 거부된다는 장경섭·송민영 (2010)의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좋은 결혼을 위해 분류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의 선택은 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개인주의는 Mill(2001)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주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체 개조를 선택한 후 여성에게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사회가 부여한 역할이 떠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며 미적 요구를 암시한다. 1960 년대 후반과 1970 년대 초반의 서구 국가들에서 타투는 다소 급진적인 여성들에 의해 성 역할에 대한 재고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미플린은 (2013) 타투를 " touchstone for women’s changing roles and evolving concerns" (여성의 변화하는 역할과 발전하는 우려의 표준점)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적 맥락에서 그들은 그러한 상징물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성들이 여전히 더 전통적인 역할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변화가 아직 주류 사회에 의해 완성되고 수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투를 하거나 타투이스트로서 활동하는 분들은 그들의 타투와 상관없이 다른 생활 방식이나 다른 성 역할에 순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기여한다.

신체 개조를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주장하는 논의는 더 큰 여성 문제로 연결된다. 이 문구는 낙태에 대한 논의를 연상시키지만 개인주의와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타투는 특히 1980 년대와 1990 년대부터 두 가지 모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다른 하나는 "property of…"을 나타내는 매춘부에 대한 타투와 같은 비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Mifflin 2013). 마찬가지로, 한국 노예주들의 (양반제도) 오래된 관행과 국가에 의해 행해진 처벌 또한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타투는 이 절차의 재활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그러나 항상 그럴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DeMello (2000)는 특히 여성들이 개인의 위기 극복, 치유, 권한 부여, 통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문신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미국에서 여성의 타투 소비의 변동은 페미니즘의 물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Hawkes·Senn·Thorn 2004). 비록 한국에 대한 유사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특히 여성들을 위한 타투의 증가와 비교적 최근의 미투 (MeToo) 운동은 유사한 현상을 암시할 수 있다. 성희롱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에 대한 논의는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두 논의 모두 젊은 여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두가지 이슈는 기성세대와 남성들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한, 여성타투에 대한 편견과 연관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타투의 크기나 수에 상관없이 여성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여성을 성 규범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awkes·Senn·Thorn 2004).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와 타투투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타투를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투를 의료를행위로 분류하여 금지하고 있다 (남궁호석 2015). 불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타투이스트들의 안전 문제를 악화시킨다.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보안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직업과 그들이 일하는 스튜디오의 불법적인 성격 때문에 기록된 잠재적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복잡하다.

법적 분류와 대중의 인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식의 변화는 합법화 가능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투는 여전히 불법이며, 이것은 여성들에게 더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문들은 여성 타투이스트들이 겪은 성희롱의 다른 사례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남성 타투이스트들에게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는 없다. 이러한 괴롭힘이 가능한 이유는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 타투이스트들이 여성 동료들을 돕는 타투이스트들의 공동체나 하위문화 내 연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타투 현장이 하위문화라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타투를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논의되었지만 타투를 한 여성과 타투이스트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바디 아트를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특히 집단주의적이고 트렌드 지향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개성과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타투를 위해 유행하는 동기를 선택하는 반면, 몇몇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싶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타투로 가지고 싶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Ink on Body』 (2022)라는 책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가족과 관련된 동기와 같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타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따라서 타투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 자신의 관심사와 성격을 자신의 몸에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것은 개인주의와 개인의

선택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적 경향을 따르거나 가족과 같은 집단 중심의 의미를 가진 타투를 하는 것은 집단주의적 가치와 특정 집단에 속한 자신의 소속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보여줄 수 있다.

다음으로 논의될 문제는 남성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다. 몇몇 타투이스트들이 그들의 남성 고객들이 매우 온화하고 조심스럽다고 말한 반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남성 고객들과 교류할 때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심지어 그들 자신이 타투를 한 일부 남성들에 의해서도 타투를 한 여성들에 대한 더 적은 수용을 보여준다.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몇몇 타투이스트들은 직업과 신체 예술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들의 가치가 낮게 인식된다고 느꼈지만,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영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비슷한 부정적 인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젊은 사람들(대학생)조차도 타투를 한 여성들, 특히 여러 개 이상의 타투를 한 여성들을 매력적이지 않고 문란하며 그들이 술을 많이 마실 것 같다고 가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Swami·Furnham 2007). 부정적인 인식은 결혼과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타투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한 여성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은 개인주의(적어도 개인주의적인 신체 예술의 정도)가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찰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여성들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위해 개인화되어야 했지만 개인주의를 부정당했다는 장경섭의 주장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여성들이 이전 세대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늦게 결혼하는 것이 정상화되고, 미의 기준에 맞게

외모를 바꾸려는 것이 기대되었지만, 결혼하지 않거나 좀 더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외모를 바꾸는 것과 같은 더 개인주의적인 선택은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성형수술이나 미용 문신(예: 눈썹)과 같은 시술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매우 인기가 있다. 이러한 시술은 외모가 사회의 미의 기준에 부합하고 사회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시술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Woo 2004). 우경자 (2004)는 여성들을 " into a framework of uniform mass production while simultaneously individualizing them" (일관적인 대량생산의 틀 속에 동시에 개인화하는 것)이라고까지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시사한다. 미의 기준에 맞는 성형수술의 인기는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의 즐거움을 위해 (단순히) 자신의 몸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더 작은 타투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유이다 (Hawkes·Senn·Thorn 2004). 아름다움은 여성과 비대칭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을 정의하기 위해 기대되고 사용되며, 따라서 억압 메커니즘의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석주·정진경 1992). 이러한 아름다움 이상의 일부는 한국의 여성이 전통적으로 순수함을 묘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타투가 이러한 속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Chan 2016). 이러한 이상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사회에 다양한 정도로 존재한다 (Kim·Lee·Lim 2017). 일부 사람들이 좀 더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의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주류에서 더 인기 있고 가시화되고 있다.

성형수술을 받거나 소위 패션 타투를 하는 것 둘 다 몇 가지 다른 개인적인 기호에 기초하며 개인주의/집단주의 측면을 거의 고려하지 않지만, 이러한 신체 개조에 대한 사회의 편향은 개인주의 또는 사회 내 순응의 틀을 사용할 때 이해될 수 있다. 헨리·포라스(2021)는 (최근까지) 널리 퍼진 성형 광고를 여성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논의하며, 비교적 획일적인 아름다움의 이상을 제시한다. 또한 저자들은 자연미에 기반하여 성형수술로 몸을 바꾸면 안 된다는 유교적 발상의 전환을 포스트모더니즘과 자연주의적 아름다움의 분해를 통해 설명한다(Henley·Porath 2021). 포스트모더니티로의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교의 쇠퇴와 더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집단적 가치의 감소와 관련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남궁호석 2015). 성형수술의 증가 추세는 가부장제, 앞서 언급한 유교의 감소, 그리고 세기의 전환기에 성형외과의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소비주의와 상품화가 연관될 수 있다(Woo 2004). 성형수술은 종종 결혼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서도 개인(특히 여성)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더 많이 논의된다(Woo 2004).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문신과 관련하여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두 관행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성형수술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이상에 부합하고 따라서 더 많은 수용을 달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타투는 주류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더더욱 개인의 기호도에 관한 관행으로 이해되기에 한국 사회에서의 수용이 어려운 것이다. 타투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고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항상 의식적으로 개인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주의적인 이유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사건들은 여성 타투이스트들이 다루어야 하는 유일한 안전 문제가 아니다. 법적인 상황은 다른 종류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여성 타투이스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투를 하는 것은 어느 성별의 타투 시술자에게도 똑같이 불법이지만,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이 논의했듯이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될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의 개인주의 수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류 밖에서 쉽게 제시하는 여성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들이 더 취약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위협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 문제는 1970년대 미국에서 타투가 성별, 인종, 계급에 걸쳐 확산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일치한다. Hawkes·Senn·Thorn (2004)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성별의 경계를 넘을 때 그것은 성별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였으며, 따라서 전문적인 여성 타투이스트들도 부정적으로 보였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것으로 묘사되지만, 더 많은 개인주의, 특히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큰 변화로 보인다 (Park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하트와 웰젤 (2005)의 주장처럼 한국의 오랜 유교 역사의 결과로 문화적 전통은 일정한 지속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주의적 선택에 대한 비판과 다른 부정적인 논평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 경우 타투를 하게 되며, 동시에 문화적 전통이 완전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노인들에 의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남성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묘사하는 타투이스트들의 위의 주어진 인용문과 연결될 수 있다. 그들이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이 그들을 경멸하거나 남성들에게 싸구려로 인식되는 것처럼 느끼는 많은 경우가 있다.

해외에서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경험을 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논의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타투의 법적 성격, 타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와 연결된 고객의 행동이다. 이러한 차이는 나라마다 타투에 대한 규정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국과 비슷한 보수적인 시기를 보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수용을 향해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토론은 대부분 타투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일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다룬다. 이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더 개인주의적이며 (Hofstede 2001 참조), 인터뷰 대상자들은 고객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상담하거나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모티브, 배치, 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타투를 훨씬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타투를 하는 한국인들이 사회 내의 오명과 제한된 수용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투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뿐 아니라 직장 내 규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경찰관들의 문신에 관한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에 바뀌었고 더 이상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송남경·박숙현 2007). 규제가 실제로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규제처럼 엄격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이유로 보인다. 한편, 큰 타투가 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타투에 기초한 전반적인 차별은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Glionna 2010). 따라서 타투를 (질게) 새긴 사람이 찜질방 또는 특정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공식적인 규정과 덜 공식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다 (Chan 2016).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에 도전하고 오히려 윗사람과 윗사람의 기호를 따르는 것을 꺼리는 것은 '유교의 화합' 속에서 살아가려는 지속적인 소망을 나타낸다. 한편, 사회적 인식과 수용뿐만 아니라 타투에 관한 법에 도전하는 용감한 개인이나 단체들도 있었다. 특히 대한문신협회와 타투이스트 도이가 한국의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은 2022 년 타투가 의료행위로 분류돼 무면허 의료인에게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예니·박민우 2022). 전반적으로, 타투와 타투를 한 사람들이 한국과 해외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인식되는지에 대한 비교는 좀 더 일반화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 권리 등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한국에서 타투의 불법적인 특성 때문에 교육 제도나 다른 제도와 규정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부족은 역사적으로 더 안전하고 규제된 위치에 있던 여성들에게 타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말라고 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위에서 논의된 경쟁, 인정 및 존중과 외부로부터의 안전 문제에 기여한다.

이 문제는 모든 타투이스트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면밀히 고려해보면 여성들에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떤 경우 사람들은 여성 타투이스트들을 덜 전문적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더 강력한 제도화와 동질적인 자격증 또는 졸업장은 여성들이 동등하게 전문적이고 그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주디 (2015)도 마찬가지로 타투의 합법화가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다양한 가치를 더 많이 수용하고 다양한 선택을 존중한다는 일반적인 신호이다.

인터뷰 참가자 중 한 명이 논의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3T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관용, 재능, 기술 (tolerance, talent, technology) 수준이 높은 도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 이론을 언급한 인터뷰 대상자는 경제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3T 점수가 높은 도시들도 퀴어족을 더 많이 끌어들였다는 것을 읽었다고 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이를 타투 현장과 연결시켜 현재 소외된 다양한 집단의 상황을 연결하고 타투 현장이 활발한 곳도 기술 발전이 더 강하고 사회 내 관용을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타투와 더 큰 맥락에서 합법적이라면 업계가 가질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 이 이론을 논의한 참가자는 또한 법적 인정뿐만 아니라 타투 현장을 한국 사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투 산업과 사회 전반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이 표현한 소망과 미래의 희망은 많은 경우 성별 측면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타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성 타투 아티스트와 남성 타투 타투이스트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보인다는 것이다.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것을 주류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한 관용과 수용의 부족을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다른 문제들과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개인주의와 주류 밖의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남기지 않는 너무 획일적인 사회를 비판한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타투의 합법화나 일반적인 인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은 타투 공동체 자체에 큰 성별 문제나 차이가 없으며 타투이스트들을 위한 사회 전반에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타투 하위문화, 특히 타투이스트들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성 불평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투를 한 사람들이나 타투이스트, 타투 하위 문화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일부 불평등과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시각적 부적합이나 개인주의적 양상과 불법성의 양상이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성격이 이미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타투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기대에 더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대부분의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성 평등 문제를 가지고 있다(Yang 2021). 이 보고서는 한국 역사를 통해 여성의 역할(특히 교육 분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이 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하는 한편, 한국 여성들이 고용 등 경제 분야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Yang 2021). 또한, 이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여성 예술가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박은희(2023)는 역사적으로 진행 중인 이 "cultural bias that assumes men and male professionalism should dominate the

workplace”(153)(남성과 남성만의 전문성이 직장을 지배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기성세대 문화에 기반한 성차별적 편견)에 대해 다른 맥락에서 논의한다.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인식은 타투 산업 내에서도 존재하며, 하위 문화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라는 특정한 측면이 어떻게 가시화되는지 보여준다.

VI 결론

타투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와 변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다른 전통적인 가치들, 그리고 타투의 법적 분류 때문에 주류 사회 전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은 지난 몇 년간 타투를 더 자주 하기로 결정했지만 기성세대나 보수주의자들로부터도 타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성형수술과 달리 특정한 아름다움 이상에 부합하고 모든 여성에게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를 갖지 않는 자신의 신체를 눈에 보이게 변형함으로써 그것은 개인주의의 행동과 표시로 이해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규범에 대한 반항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타투의 형태로 신체를 변형시킨 동기와 추론은 한국 사회의 억압되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자기 표현에 대한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부장적 규범에 의한 여성의 신체 통제와 타투가 하층 계급을 표시하거나 노예 소유권이 전복되는 역사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타투와 페미니즘이 모든 경우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여성의 권한 부여를 위해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사례들이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발적

타투를 전통적인 여성미 기준(특히 한국)에 어긋나고 개인주의적 행동(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을 장려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페미니스트 행동으로 본다.

본 논문을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타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여성의 신체 통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얽혀 있는 법적 상황과 사회적 인식 및 기대이다. 여성 타투이스트의 대표로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돈을 벌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동기는 다양하지만, 그들의 관행에 반대하는 사회적 규범과 그들의 역사를 의식한다. 그러므로 이 타투이스트들은 여성의 권리, 특히 여성의 자기 표현과 개인주의의 자유를 위한 선구자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그들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트렌드를 완전히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완전히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히 여성 고객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을 돕는다.

한국 여성 타투이스트들은 더 많은 자유와 개인주의를 향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타투 현장과 같은 다양한 (연령) 그룹과 하위 문화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눈에 띄지만, 이러한 장소들에서도 다소 신중하게 시행되고 주류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기대, 안전, 인식/존중과 같은 많은 투쟁이 여성뿐만 아니라 이진 성 체계 내에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 큰 투쟁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남자들이 이러한 투쟁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성별과 아직도 매우 흔한 성별 특정 기대 사이의 지속적인 불평등을 보여주었고 여성들이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여전히 덜 받아들여진다. 성 불평등이

사회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타투와 같은 더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악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 공동체 내에서 성별 간 연대와 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한계는 한편으로 한국의 모든 여성 타투이스트나 타투를 한 여성들에게 대표적인 것은 아닌 인터뷰 대상자의 수에 기인할 수 있다. 추가 연구는 비교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물론 다양한 경험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예술가들을 인터뷰할 수도 있다. 성별 스펙트럼에 걸쳐 타투이스트를 인터뷰하는 것은 또한 더 섬세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지만, 이를 위한 잠재적인 인터뷰 대상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또한 장애인, 비씨성, 비한국인 등의 여성 참가자를 확보함으로써 교차성을 향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 한국에서 타투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관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인 이 문제와 사회의 반대측면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훈 et al. 2021.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타투 행위에 대한 질적 연구 - 국내 MZ 세대를 중심으로 」. 『복식』 71 권 5 호. pp. 20-37.

강은주. 2008.「한국사회에서 타투(Tattoo)의 문화적 의미변화 」. 『Design Forum』 19 권. pp. 403-412.

고석주, 정진경. 1992. 「외모와 억압: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마치는 영향」. 『 한국여성학』 8 권. pp. 33-75.

김현경, 송재은. 2022. 『Ink on Body: 한국 여성 타투 이야기』. 서울: 윔그래이앤블루.

김형중. 2013. 「한국과 일본의 형벌문신에 대한 역사와 사회・문화・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경찰연구』 12 권 4 호, pp. 87-118.

김혜진. 2021. 「끝나지 않는 문신 합법화 논쟁… 국회도 '문신사법' 필요성 공감」. 『 일요서울』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519

강민경. 2021. 「류호정, '타투법안 홍보에 BTS 이용' 비판에 공개사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050500001?section=search

남기연. 2012. 「문신시술과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법하논총』 36 권 2 호. pp. 447-469.

남궁호석. 2015. 『한국의 문신: 타투이스트가 전하는 타투 이야기』. 서울: 청어출판사.

문혜성, 선민수. 2013. 『문신유희: 지금, 한국의 타투문화』. 문혜성 에디터; 선민수 사진. 파주: 프로파간다.

신정경, 정기성. 2019. 「감성 타투에 나타난 문양의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9 권 4 호. pp. 139-152.

송남경, 박숙현. 2007. 「타투(Tattoo)와 문신(文身)에 관한 소비자인지도 및 유래에 나타난 차이점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007.01.31. doi:10.5850/jksct.2007.31.1.107.

양정은, 이재원. 2020. 「한국인의 집단주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권 12 호. pp. 593-610.

이동철. 2007. 「한국 문신민속의 양상과 특징」. 『*한민족문화연구*』 22 권. pp. 335-371.

헤럴드경제. 「나나, 타투가 보기 싫어 지우고 싶은 스타 1 위」. 『헤럴드경제』. 2022.10.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03000085

Asian Boss. 2020. “Being A Female Tattoo Artist In Korea | EVERYDAY BOSSES #56.” *YouTube* video, 16:32 min. 8 December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xe14upmEgrc

Atkinson, Michael. *Tattooed: The Sociogenesis of a Body Art*. Michael Atkinson., 2003.

Bailkin, Jordanna. 2005. “Making Faces: Tattooed Women and Colonial Regimes” *History Workshop Journal* no. 59 (Spring 2005): 33-56.

Bjerrisgaard, Sofie Møller, Dannie Kjeldgaard, and Anders Bengtsson. 2013. "Consumer-brand assemblages in advertising: an analysis of skin, identity, and tattoos in ads” in *Consumption Markets & Culture* 16, no. 3: 223-239. DOI: 10.1080/10253866.2012.738067

Brosius, Hans-Bernd, Friederike Koschel, and Alexander Haas. 2008. *Methoden der empirischen Kommunikationswissenschaft*. 4th ed.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Buchholz, Katharina. "Tattoos Remain Taboo in Korea." *Digital image*. June 15, 2021. Accessed April 27, 2022. https://www.statista.com/chart/25081/tattoos-in-south-korea/

Cavanagh, Sheila L., Angela Failler, and Rachel Alpha Johnston Hurst. 2013. *Skin, Culture and Psychoanalysis*. Edited by Sheila L. Cavanagh, Angela Failler, and Rachel Alpha Johnston Hurst., 2013.

Chan, Tim. 2016. “Inside the Underground Subculture of Female Korean Tattoo Artists.” *i-D*. Accessed April 26, 2022. https://i-d.vice.com/en_us/article/evxd7z/inside-the-undergroundsubculture-of-female-korean-tattoo-artists

Chang, Kyung-Sup. 2010. “Ch. 1.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Familial Basis” In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1-13. Oxfordshire, UK: Routledge.

Chang, Kyung-Sup and Song Min-You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 no. 3: 539-564.

DeMello, Margo. 2000. *Bodies of Inscription: A Cultural History of the Modern Tattoo Commun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DKDKTV. 2018. “What do Koreans think of TATTOOS” *YouTube* video, 7:08 minutes. 8th of October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FN0PpFW0CuU

Fedorenko, Janet S., Susan C. Sherlock, and Patricia L. Stuhr. 1999. “A Body of Work: A Case Study of Tattoo Culture.” *Visual Arts Research* 25, no. 1 (1999): 105-114.

Glionna, John M. 2010. “Seeking a skin-deep revolution; A campaign aims to transform South Korea's attitude on tattoos, long seen as the mark of hoodlums” *Los Angeles Times*, 12 September 2010: A.3.

Haerpfer, C., Inglehart, R., Moreno, A., Welzel, C., Kizilova, K., Diez-Medrano J.,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t al. (eds.). 2020. World Values Survey: Round Seven – Country-Pooled Datafile. Madrid, Spain & Vienna, Austria: JD Systems Institute & WVSA Secretariat. doi.org/10.14281/18241.1

Hawkes, Daina, Charlene Y. Senn, and Chantal Thorn. 2004. “Factors that influence attitudes toward women with tattoos.” *Sex Roles* 50, (9) (05): 593-604,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factors-that-influence-attitudes-toward-women/docview/225365514/se-2 (accessed September 20, 2022).

Henley, David and Nathan Porath. 2021. “Body Modification in East Asia: History and Debates.” *Asian Studies Review* 45, no. 2 (2021): 198-216, DOI: 10.1080/10357823.2020.1849026

Hofstede, Geert.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i-D. “Grace Neutral Explores Korea's Illegal Beauty Scene [FULL FILM].” *YouTube* video, 35:30 min. 27 May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JYfJfCeQ8As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05. “Chapter 2: Value Change and the Persistance of Cultural Tradition” In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48-76.

Kashima, Yoshihisa, Susumu Yamaguchi, Uichol Kim, Sang-Chin Choi, Michele J Gelfand, and Masaki Yuki. "Culture, Gender, and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5 (1995): 925-37.

Kim, Mi-Young, and Kyoung-Hee Lee. “Study on Fashion Sensibility and Emotion through Tattoo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 no. 3,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 Mar. 2007, pp. 331–342. *Crossref*, doi:10.5850/jksct.2007.31.3.331.

Kim, Sunwoo, Yuri Lee, and Seunghoo Lim. 2017. “Identifying Aesthetic Preferences for Beauty Types in Women’s Appearance Among East Asian Cultures” *Global Fashion Management Conference at Vienna Proceedings*: 302-307 (July 2017). https://doi.org/10.15444/GFMC2017.04.05.01

Korea Tattoo Association. Accessed May 05, 2022. http://koreatattoo.or.kr/

Kosut, Mary. "An Ironic Fad: The Commodification and Consumption of Tattoos." *Journal of Popular Culture* 39, no. 6 (2006): 1035-048.

Kwon, Junhyup. 2022. “Why Does South Korea Ban Tattooing?” *Vice* April 1, 2022. https://www.vice.com/en/article/qjb5dd/why-does-south-korea-ban-tattooing

Larsen, Gretchen, Maurice Patterson, and Lucy Markham. 2014. “A Deviant Art: Tattoo-Related Stigma in an Era of Commodification.” *Psychology and Marketing* 31, no. 8 (August): 670-681.

Leader, Karen. 2016. “'On the book of my body': Women, Power, and 'Tattoo Culture'.” *Feminist Formations* 28, no. 3 (Winter 2016): 174-195.

MacFarlane, Morgan. 2019. "Tattoos in East Asia: Conforming to Individualism." *Outstanding Student Work in Asian Studies* 4: 1-35.

MBCNEWS. 2021. “[집중취재 M] 1,300 만 명이 '문신' 경험했지만...시술자는 30 년째 '불법' (2021.08.27/뉴스데스크/MBC)” *YouTube* video, 4min

39sec. 27th of August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3UM14Ky4XI&ab_channel=SBS%EB%89%B4%EC%8A%A4

Mifflin, Margot. 2013. *Bodies of Subversion: A Secret History of Women and Tattoo*. Third ed. PowerHouse Books: Brookly, NY.

Mill, John Stuart. 2001. *On Liberty*. Dover Thrift Editions. Mineola, NY: Dover Publications.

Minkov, Michael Et. al. 2017. "A revision of Hofstede's individualism-collectivism dimension: A new national index from a 56-country study" In *Cross Cultural & Strategic Management* 24, no. 3: 386-404.

Park, Judy. 2015. "Signs of social change on the bodies of youth: tattoo in Korea." *visual communication* 15, no.1: 71-92.

Seo, Yeni and Minwoo Park. 2022. "S.Korean court upholds tattooing ban." *Reuters*, March 31, 2022.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korean-court-upholds-tattooing-ban-2022-03-31/

Song, Nam-Kyung, and Sook-Hyun Park.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s' Perceptive Attitude and Origins of 'Tattoo' and 'Moons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January 31, 2007. doi:10.5850/jksct.2007.31.1.107.

"subculture." *Dictionary.Cambridge.org*. Cambridge Dictionary 2023. Web. 16 June 2023.

Swami, Viren and Adrian Furnham. 2007. "Unattractive, promiscuous and heavy drinkers: Perceptions of women with tattoos" *Body Image* 4 (2007): 343-352.

Thilly, Frank. “The Individualism of John Stuart Mill.” *The Philosophical Review* 32, no. 1 (1923): 1–17. https://doi.org/10.2307/2179029.

Tiggemann, Marika, and Fleur Golder. "Tattooing: An Expression of Uniqueness in the Appearance Domain." *Body Image* 3, no. 4 (2006): 309-15.

Trendmonitor. "Perception changes on tattoos in South Korea from 2014 to 2018." Chart. August 8, 2018. Statista. Accessed April 27,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14962/south-korea-perception-on-tattoos/

Trendmonitor. "Expectations for the future tattoo market in South Korea as of July 2018." Chart. August 8, 2018. Statista. Accessed April 27,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14981/south-korea-expectation-future-tattoo-market/

Woo, Keong Ja. 2004. “The Beauty Complex and the Cosmetic Surgery Industry” *Korea Journal* 44, no 2 (2004): 52-82.

Yang, Hyunsoo. 2021. “Korea Has Come a Long Way, but Has a Longer Way to Go” *Korea and the OECD: 25 Years and Beyond*: 256-265.

Abstract

Gender Specific Individualism Issues in Korea Through the Lens of Female Tattoo Artists

Valentina Rende

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attoos have been increasing in their popularity in the recent years in South Korea but nevertheless remain illegal (when the procedure is done by a non-medical professional) and negatively perceived by society, especially by conservatives and older generations. This increase in popularity can be seen as a cultural and societal shift. Tattoos seem to have increased disproportionately more for women, which is the aspect that this thesis focuses on. Historically women in Korea have been largely denied individualism and have been held to different standards than men which is why the recent development can be seen in a larger context as an indicator of change in individualism and gender roles. More specifically, getting tattoos and working as a tattoo artist symbolise women making decisions for their own pleasure and about their own life even if these decisions deviate from societal expectations. Furthermore, while plastic surgeries which have the objective of conforming with a societal beauty ideal have been normalised in Korea, tattoos as a more individualistic form of body modifications are rather stigmatised. This shift takes place in different contexts and different areas of life but this thesis chooses to focus on tattoos as a visible indicator and understudied phenomenon. In addition to literature review concerning historical developments and theoretical background, this thesis works with qualitative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 female tattoo artists. The interviews aim at exploring the female experience in this field and learn more about the individuals' motivations as well as their position within society. Analysing the interviews and experiences retold by the interviewees leads to the findings that these women defy societal expectations and gender roles which is accepted within their own community or subculture, but often disregarded by mainstream society, especially older generations. While Korea is usually classified

as a rather collectivist societ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pecific groups or subcultures are at the forefront of a cultural shift regarding individualism and gender roles but these shifts are (not yet) accepted by larger society and in some cases by men which can be seen in negative experiences such as harassment which these women face.

Keywords: Tattoos, Korean Society, Individualism, Gender

Student Number: 2021-25837